

유럽 지성사 속의 한국연구

이은정(Eun-Jeong Lee), Free University at Berlin

유럽의 지성사를 연구하다 보면 18세기에 발표된 세계사 책에서 “Corea”에 관한 글들을 발견하게 된다. 물론 계몽기 유럽 역사학자들을 유럽 한국학의 선구자라고 부르기에 그들의 연구는 극히 지엽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저술을 통해 유럽의 학생들은 한국의 풍습과 역사 지리에 관해 공부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한국”이 유럽 학계에 미세하나마 뿌리를 내릴 수 있었다. 유럽 대학에는 학문 연구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인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소수의 학자들이 연구하는 분야라도 학문적으로 보호하는 전통이 있다. 그것을 “난초와 같은 학과”(Orchideen Fächer)라고 부른다. 19세기에 파리와 베를린 라이프치히 등과 같은 대학에 설립된 동양학 뿐만 아니라 인도학을 비롯한 대부분의 지역연구가 그렇게 불렸다. 한국학 또한 그에 속한다. 인류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시작된 만큼 유럽 대학의 지역학은 인문학적 특색이 강했다. 언어와 역사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사상과 문화, 문학과 종교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것이다. 이러한 학문적 전통을 바탕으로 성장한 유럽의 한국학은 2차 세계대전 냉전의 틀 속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도움을 주기 위한 도구적 목적으로 설립된 미국의 지역학과 지금까지도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다. 필자는 이번 발표에서 계몽 시기 유럽, 특히 독일의 지식인들이 본 중국과 동아시아, 그리고 조선 Corea에 관한 서술을 중심으로 유럽의 지역학 속에서 한국연구의 뿌리에 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유럽에서의 동아시아 연구의 역사

유럽의 일반 지식인과 대중들에게 동아시아에 관한 직접적인 정보를 최초로 전달해 준 문헌은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물론 마르코 폴로 이전에도 비단길을 통해 동아시아와 유럽 간에 교역이 있었다고 하지만 고대 로마시대에 유럽인들에게 “아시아”란 단지 중동과 인도를 포함한 모든 동쪽의 “야만인”들일 뿐이었다. 중국과 동아시아 지역에 관해 그들이 알고 있던 유일한 정보라면 라틴어로 “Sera” “Serer”로 표현되는 “비단의 나라” “비단을 생산하는 사람들”이라는 정도일 뿐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가 유럽의 일반 독자들에게 동아시아를 알려준 첫 번째 보고서였다고 간주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에 등장한 동아시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 15세기 독일에서 출판된 마르코 폴로 여행기에는 동아시아인들을 설명하는 아주 흥미로운 삽화가 들어있다.



1477년 독일에서 출판된
마르코 폴로의 동방견문록에
포함된 삽화
- 동아시아의 이상한 존재들

이 삽화에 인도 저편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유럽인들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모습을 한 “괴물”에 가까운 반인간 들일 뿐이었다. 물론 마르코 폴로가 설명하는 쿠빌라이 칸의 제국, 즉 원나라는 아주 멋있고 잘 사는 큰 나라였지만 그가 전해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근거로 유럽의 출판인들이 만들어낸 동아시아인의 이미지는 반인반수의 이상한 존재들일 뿐이었다. 이것은 유럽인을 처음 본 동아시아인들이 유럽 사람을 “파란 눈을 한 이상한 악마”라고 부른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럽인들이 동아시아에 관해 가졌던 이상한 이미지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은 누구보다 예수회 선교사들이었다. 16세기 일본에 와서 카톨릭의 믿음을 전파하는데 성공하였던 예수회 선교사들은 17세기에 중국에서 선교활동을 하였고, 중국 정부의 천문관으로 부임할 정도로 성공하였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동아시아에서 그렇게 성공적으로 선교활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그들의 특별한 선교 방법 때문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선교하는 지역의 문화를 이교도의 문화라고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와 기독교의 문화 사이에 공통점을 찾아서 그것을 부각시킴으로써 현지인들이 기독교에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교 방법이 카톨릭 교단 내에서 항상 환영을 받았던 것은 아니다. 특히 동아시아, 그중에서도 중국에서 예수회의 선교 방법을 적용하는 문제에 관해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었다. 왜냐하면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의 카톨릭 신자들이 조상숭배의 예절을 실천하는 것, 즉 제사를 지내는 것을 허락하였기 때문이다. 예수회 선교사들과 달리 도미니크회의 선교사들은 제사를 철저히 금지하였었다. 그 결과 예수회 선교사들이 훨씬 더 성공적으로 선교활동을 하게 되었고, 이를 시

기한 도미니크 회의 선교사들은 로마의 교황에게 예수회의 선교 방법이 잘못되었다며 제사를 지내는 것은 미신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난하였다. 이러한 비난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의 문화 특히 유교의 예법이 무엇인가 그리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왜 미신이 아닌가 하는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수많은 보고서를 유럽으로 보냈다. 이들 보고서들을 통해 유럽에서의 동아시아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저술한 책의 여러 곳에 한국에 관한 이야기도 포함되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회 선교사들이 유럽에서 최초로 학술적으로 한국을 분석했었던 학자였다고 할 수 있다.

예수회 선교사들은 중국과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유교 철학의 본질을 유럽인들이 직접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교의 고전을 라틴어로 번역하여 출판하였다. 1687년에 출간된 “중국의 유교 철학 Confucius Sinarum Philosophus”의 경우 공자의 생애와 유교 철학의 특성을 설명하는 긴 서문과 함께 논어와 맹자의 일부 그리고 중용 대학을 번역을 포함하였다. 이 책은 당시 “베스트셀러”라고 할 정도로 많이 팔렸을 뿐만 아니라 신속하게 유럽 8개국어로 번역되었다. 그것은 당시 유럽의 지식인들이 중국과 동아시아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예수회 선교사들이 전해준 중국과 동아시아에 관한 수많은 정보 덕에 17세기 후반과 18세기 초반 유럽의 철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유교 철학에 관에 진지하게 연구하게 되었다. 1696년에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발표한 “Novissima Sinica 중국에서 온 새로운 소식들” 또는 1721년에 라이프니츠의 제자이자 독일 국가철학의 선구자인 크리스티안 볼프가 발표한 “중국의 실천철학에 관한 연설” 등은 유럽에서 진행된 초기 동아시아 연구의 중요한 산물이었다.

라이프니츠, 볼프뿐만 아니라 프랑스의 볼테르 그리고 다른 수많은 철학자들이 유교 철학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저술에 포함시켰다. 이 시기에 특히 이루어진 동아시아 관련 연구 중에 특히 흥미로운 것은 당시 세계 공통의 문자를 만들고자 노력한 사람들이 “한자”에 특히 관심을 갖고 한자의 원리를 잘 이해하면 그것이 세계 공통의 문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었다는 것이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라이프니츠와 같은 철학자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은 동아시아인들이 서로 각자의 언어를 사용하면서 한자를 공통의 문자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이는 한자라는 문자가 가진 특별한 특성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한자를 분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물론 이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지는 못했다. 그들이 성공했다면 오늘날 전 세계인들이 한자를 공통의 문자로 사용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고 상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에 관한 연구가 유럽에서 학문적 분과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세기 초의 일이다. 프랑스의 소르본 대학의 신학자들과 철학자들이 중국의 전례문제를 두고 논쟁을 벌인지 약 150년의 시간이 흐른 뒤

에 1814년에 프랑스에서 동양학의 교수직이 설치되었다. 이것이 유럽 대학에 설치된 최초의 동양학 연구를 위한 기구였다. 그러나 대학에 동양학 교수직이 설치되었다고 연구의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1800년대 초까지 유럽인들이 동아시아에 관해 일반적으로 논의했던 주제를 보면 유교 철학과 한자 외에 동아시아 문화의 기원의 이집트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와 같이 “허무맹랑한” 논의가 학자들 간에 진진하게 이루어졌던 경우도 있다. 이집트의 상형문자와 중국의 상형문자가 동일한 기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중국 문화의 출발점이 이집트 문화였다는 주장을 아주 논리적으로 펼치는 18세기의 동아시아 관련 저작들을 읽으면 웃음이 나오겠지만, 당시 유럽의 지성들에게는 유럽 문명의 우월성을 가름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점의 하나였다.

계몽시대 독일 역사학자가 본 한국/한국사

17세기에 유럽의 지식인들은 선교사들의 보고서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여행기를 통해 동아시아와 중국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반면 조선에 관한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전달되었다. 유럽인의 지식인들이 조선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한 시기는 하멜표류기가 1668년에 네덜란드어로 출판되고, 이어서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로 번역된 후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조선에 대한 학술적인 접근을 최초로 시도한 것은 예수회 선교사들이었다. 그들이 유럽으로 보낸 보고서의 여러 곳에 조선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다. 그들이 전한 한국에 관한 이야기는 대부분 중국의 역사서에 나오는 한국에 관한 설명 즉 중국인이 본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이었다. 17세기 조선의 상황에 관한 이야기는 거의 전달되지 않는다. 당시 유럽인들은 하멜 표류기를 통해서만 동시대 한국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병자호란 이후 1641년에서 1645년 사이에 청의 인질로 북경에 머물러야 했던 소현세자와 당시 청 정부에서 천문감직을 맡은 독일인 예수회 선교사 아담샬 벨이 친분을 나누었다고 전해지지만 이들의 친분관계를 통해 예수회선교사들이 조선에 관해 관심을 갖게 되었다거나 또는 그들의 보고서에 당시의 조선에 관한 보고를 전한 것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1743년에 프랑스 외방 선교회의 뒤 알드가 편찬한 중국에 관한 기술에 포함된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소개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1760년대 독일 괴팅겐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세계사” 학파의 저술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었다. 특히 세계사 학파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요한 크리스토프 가터리가 1764년에 발표한 “세계사 사전”에는 “코레아”가 별도의 챕터로 실려 있다.¹ 이 챕터에서 가터리는 뒤 알드의 중국전에 소개된 한국에 관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하멜표류기 등 당시 유럽에 소개된 여행기에 포함된 정보도 포함시키면서 자기 나름대로 한국(Corea)에 관한 균형 잡힌 지식을 전달하고자 했다.

코레아의 문화에 관해 설명하는 부분에서 가터리는 코레아의 주민들이 중국인들과 유사한 종교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관습 또한 중국과 아주 유사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석가를 숭배하지 않

¹ Johann Christoph Gatterer, *Handbuch der Universalhistorie nach ihrem gesamten Umfange bis auf unsere Zeiten fortgesetzt*. Goettingen 1764. 1권

는 사람들은 공자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하면서, 불교는 기독교의 한 아류의 잔재라고 쓴 것도 흥미롭다 (Gatterer 1764: I, 384). 코레아의 왕은 중국 황제의 신하이지만,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국가의 모든 토지와 재산에 대한 유일한 소유권자이며 (387), 귀족과 공신은 생전에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지만 상속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388). 코레아인의 법률에 관해서는 알려진 것이 별로 없지만, 중국의 왕자인 기자가 기원전 1122년에 코레아의 첫 번째 왕국인 조선(Tschao-sein)의 첫 번째 왕으로 등극해서 중국의 서경에서 나오는 8조의 법률을 자신의 왕국의 근간으로 삼았다고 가터러가 기술한 것을 보면, 17-18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전달한 지식이 여행자들의 단순한 여행기와 완전히 다른 성격의 저술이었음을 알 수 있다 (389).

가터러의 세계사 코레아 편을 읽으면 이미 18세기 중반에 유럽 지식인들 간에 코레아의 문화에 관해 상이한 해석이 존재했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난다. 그는 혹자는 수백 년에 걸쳐 왕조가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법률이 이 사회에 확고하게 뿌리내려서, 이 나라에서는 지금까지도 도둑질과 간통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밤에 대문을 잠글 필요가 없을 정도로 코레아는 다른 국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사회라고 칭찬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코레아인들이 도둑질을 너무 잘 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엄격한 법을 도입했어야만 한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전한다 (390). 어떤 사람은 코레아인들이 용기가 없다고 경멸하며, 어떤 사람은 그와 정반대로 코레아인들이 용감하면 전투적이라고 설명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묘사가 존재하는 것은 두 가지 묘사가 모두 어느 정도 진실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그의 결론이다. 그는 여행기를 쓰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는가에 따라 상이한 이야기가 전해질 수도 있다는 설명도 첨부한다. 하멜표류기의 저자가 전하는 것처럼 코레아인들 중에는 난파되어 표류해 외국의 배를 약탈하는 것에 익숙해 있는 해변가 주민들, 즉 도둑과 해적이 있는가 하면, 외국 여행자들이 들어 갈 수 없는 북쪽 지방 출신의 강인하고 뛰어난 군인도 있다는 것이다 (393).

이 시기에 몽테스큐와 같은 유럽의 정치사상가들이 앤슨 제독의 “세계 여행기”² 를 근거로 예수회 선교사들이 전해주는 중국과 동아시아 문명에 관한 소식을 믿을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중국 문명을 보는 시각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과는 달리 역사학자인 가터러는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모두 규합한 후에 한국인과 한국 문화에 관한 상반된 서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다. 이러한 차이는 모든 역사적 사례를 자신의 정치적 사유를 피력하기 위한 도구로 간주하는 정치사상가들이 중국 문명을 접근하는 방식과 새로 정착되기 시작한 실증적 역사학의 접근 방식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괴팅겐 역사학파의 대부인 가터러에게는 다른 문명에 대한 주관적인 가치 평가보다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역사기술이 우선적인 과제였다. 상반되는 정보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경험적인 검증이 불

² ANSON, George - WALTER, Richard. A Voyage Round the World, In The Years MDCCXL, I, II, III, IV. By George Anson, Esq; Commander In Chief Of A Squadron Of His Majesty's Ships, Sent Upon An Expedition To The South Seas. Compiled From His Papers And Materials, By Richard Walter, M. A. Chaplain Of His Majesty's Ship the Centurion in that Expedition.

가능할 때에는 상반되는 정보 자체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을 역사학자의 과제로 간주한 것이다. 한국에 관한 가터리의 서술은 당시 유럽인들이 얻을 수 있는 상반되는 정보들을 총망라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터리의 묘사에서 우리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이야기들과 예수회 선교사들의 도덕적 시각에서 나온 평가를 동시에 읽을 수 있다.

어떤 여행자들은 코레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일이 먹고 마시며, 춤과 음악, 모든 종류의 풍요로움을 즐기는 것이라고 전하기도 한다고 가터리는 쓰고 있다. 동시에 그는 100년 전인 1644년에 타타르인, 만주족에 의해 점령되기 전에는 코레아인들이 절제 없는 낭비가 끝이 없었지만, 이제는 중국에 보내야만 하는 조공의 부담 때문에 가난해져서, 국민이 근면해지고, 털 방탕스럽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전한다. 이와 관련해 가터리는 코레아인들의 민족성도 다른 민족들에게서 관찰할 수 있는 것처럼 시기에 따라서 다양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397).

한편, 코레아인의 국민성과 관련해서 어떤 여행자들은 그들이 잘 생기고 건장한 체격을 지녔고, 이방인에게는 친절하지만, 재능 없고, 불행해서 가장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아주 엄하고, 단순하며, 미신을 믿지만, 음흉하고 잘 속이며 도둑질을 잘 하며, 최근에는 특별법을 통해 금지되어야만 할 정도로 사기를 잘 친다고 묘사한다고 한다 (398). 반면에 아무런 지식도 가지지 못했던 코레아인들이 중국인으로부터 학문과 예술을 배워서, 특히 뛰어난 도덕성을 지니며, 공자의 기본적인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다 (401).

그러나 지리학에 관해서는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코레아인들도 아는 것이 거의 없어서 그들의 지도는 겨우 삼왕국까지만 포함하며, 유럽인으로부터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지역에 수많은 나라가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은 “태양이 어떻게 그 많은 나라를 비출 수 있는가” 하면서 아주 작은 섬 또는 몇 개의 암석을 왕국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비웃는다고 전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보고도 인용한다 (401). 이 에피소드는 중국에 있는 예수회 선교사와 연행사로 중국을 방문한 조선의 관료들 간의 만남에 관한 보고를 통해 전해진 이야기이다. 가터리는 뒤 알드의 중국전에서 읽은 이 에피소드를 보면서 코레아인들이 큰 오류를 범하고 있지만, 그 방식이 아주 철학적이라고 평한다. 이러한 평가는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냉소적으로 들린다. 그것은 이 시기 유럽 지식인들이 중국을 보는 시각이 비판적으로 전환하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가터리의 “세계사 사전”이 출판되었던 18세기 중반에 저자들은 자신들이 참고한 문헌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가터리의 경우 자신이 참고한 자료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정보를 제공했다. 그는 1760년대 초반까지 유럽의 지식인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대부분의 자료를 통해 코레아에 관한 지식을 규합해서 이 챕터를 작성했다. 여행기, 선교사들의 보고서 외에 난파한 선원들의 증언 등 18세기 중반 유럽의 지식인들이 접할 수 있는 한반도에 관한 정보의 양은 제한적이었고 정확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서로 완전히 상반되는 정보들도 많았다. 역사학자로서 요하네스 가터러는 자신의 저서를 집필하면서,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상반되는 묘사 중에서 한 쪽만을 취사선택한 것이 아니라 서로 상반되는 묘사가 공존한다는 사실 자체를 기술하면서, 양 쪽의 정보를 모두 전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현대 독일의 정치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보이텔스바흐의 원칙에 따라 서로 모순되는 정보를 모두 제공하면서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준 것이다

그러나 1764년 이후 유럽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오히려 유럽 우월주의적 사고가 점차 깊게 뿌리 내리게 되면서, 다른 문명에 대한 서로 상반되는 정보의 진위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다. 상반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류문명사를 서술하겠다고 공언했던 헤르더조차도 유럽우월주의적 시각을 바탕으로 중국과 동아시아 문명을 평가했다. 그런 지적 분위기 속에서 유럽 지식인들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는 한반도의 왕국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세기 말 프랑스와 독일이 조선과 수호조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조선의 외무참판까지 올라갔던 파울 게오르크 뫼렌도로프가 많은 독일인 전문가들을 조선으로 데려왔지만, 이 시기 독일 지식인들에게 한반도는 여전히 관심 밖에 있는 나라였다. 한국이 유럽의 지식인들에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세기 후반 산업화가 시작된 이후의 일이다. 유럽의 대학에 한국학과가 정착되기 시작한 것 또한 1945년 이후의 일이다. 한국학이 유럽 대학에 한 학과로 제도적으로 정착된 이후 유럽의 지식담론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관한 문제는 이번 발표에서 주어진 시간의 제약으로 다룰 수 없다. 이 문제는 다른 기회를 통해 유럽의 여러 한국학자들과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